

지리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전국민동생육개발사업제
● 우리 차문화의 계승확대를 위해 생산자 보호를 위한 차세제

05951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개를 뜨고, 서비스를 평생
빅맨평생통장

● 이자가 꼬박꼬박 오면 금리도 내릴 때는 약정금리로
● 고액유급 수혜자인 영호씨에게
●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대우서비스 제공

문의: 090-023-4000
국민은행

당회회장: 노태형 / 발행인: 김민집 / 편집: 김경삼 / 논설: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1월 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곤 곧 부처를 보게 된다.
(금강경)

법회 안내

- 정암사 (02)683-3993
초하루법회 매월 11일(음) 오전 10시
창어(11월 10일(음)) 오후 2시 10분
중앙포교교회관 (02)523-024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9시 30분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 11시
합창대법회 매주 토 오후 2시
보살법회 매주 첫째 화 오전 8시
노문사 (02)928-3797
한양대법회 매주 목 오후 2시
창원법회 매주 토 오후 6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연화어린이회 매주 일 오전 10시
정토포교원 (02)737-0853
외국인법회 셋째 일 오전 11시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거사법회 매주 금 오후 7시 30분
대덕법회 매주 월 오후 7시
광명 금강정사 (02)893-2700
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30분
화양법회 첫째 주 오전 10시 30분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 7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연대선원 (0417)561-2010
일련법회 1·15(음)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창년법회 매주 월 오후 8시
일양 문수사(0396)671-8889
일련법회 1·15(음) 오전 11시
창년법회 매월 4주 일 오후 7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 2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각성 · 참회의 기회 삼기를”

조계종 '盧씨 비자금' 성명 정경유착 과감한 청산 촉구

재가단체 “관련자 처벌” 한 목소리

교계는 10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 국민사과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수순이며, 이 사태를 계기로 정치지도자를 비롯 각계 지도자들이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청정함을 갖추는 각성과 참회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연희동 자택에서 대 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며 “어떤 심판 처벌도 감수하며 속죄의 길이라면 무슨 일이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일주스님은 10월 26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에 대한 불교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일주 총무원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이번 비자금 사건은 국민의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정치권력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쌓아 국가에 대한 희망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태로 우려하고 ‘한정 의혹’이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 총무원장은 “차별 예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 마련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경유착을 일삼아왔던 부도덕한

또한 지난달 23일 민자당 김운환대표의 ‘낙향→불도에 정진’ 발언과 관련한 종단과의 사전 조율 풍문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모 종교단체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헌납한 비자금이 명부기 등에 오용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조계종과의 관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답했다.

한편 한국재가불자연합 전국 불교운동연합 불교시민단체협의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인권위등 교계단체들도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진상을 끝까지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경숙 기자)

1400년만에 빛본 '백제 돌 사리감'

충남 부여군 능선리 절터 유적지에서 567년 백제 불조의 여종상인 공주가 만든 사리감이 아시아 최초로 발굴, 세계 학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로 세로 각 50cm로 74cm크기의 화강석으로 된 사리감은 한국고대사 연구의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리감과 함께 흙으로 조성된 불상과 불두, 금속제 장신구 등 546점이 발굴됐다. (관련기사 13면)



목어

“회사를 살펴보고도 여섯형제의 집까지 경매에 부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말이지 착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는 것인지 내가 바보였는지...” 신익원의 부도를 내고 도피하다 자기집을 팔아 적인 55명의 피지금을 정리하고 자살한 중소기업 사장 최원익씨의 유서에는 양심이 살아있다.

비자금 파문으로 나라안을 발칵뒤집어놓듯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 시민의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무얼 느

길 수 있을까. 한번 묻고 싶다. 저들도 ‘보통사람’ 밑에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어느 불자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1백만원씩 저축해서 3백여원을 모으려면 2천5백년

의 지면을 할애하여 노씨의 ‘뜨다’였다는 비자금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나라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역사를 오욕의 구렁텅이로 만들어놓는 사람에게 과거의 지위따위가 배려되어서는 안된다.” “대 국민사과

사찰등급제 실시령

조계종은 지난달 26일, 9월 20일 입법예고한 사찰등급제 실시령을 의결·공포하고 분당금 납부에 관한 법제정인과 관련된 사찰 관련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내년 1월 30일까지 심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찰 등급혁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차라리 성불이 쉽겠어요”

국가현란, 낙향 시나리오는 국민을 활저히 무시하는 발상이다. “노씨는 지금 국민 가슴속에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을 맞게끔 붕괴시키고있다.” “노씨는 회개·참회하라.” 노씨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일간지들은 연일 10만 이상

‘사법처리후 죄상이 밝혀지는 대로 구속처벌하라’ (57.4%)는 상당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안된다. 그리고 10월20일까지 ‘오리발’을 내민 노씨에게 초기경전(자타카)의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권력을 함수에 쥐고 백성에게 재산과 손해를 끼친 왕은 도둑과 다를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악업에서 벗어나는 길도 알려 주셨다. “자책하고 참회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능히 근본업을 풀아버릴 수 있다. 그러나 악업을 숨기고 뉘우치지 않으면 죄는 밤낮으로 늘어간다.”

방장스님 친견법회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님들께 보답하고자 한국불교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5일 조계종 총정 일하스님(봉선사 방장) 친견법회를 성황리에 가진 것을 시작으로 해인사 수덕사 송광사의 4대총림 방장스님을 친견하는 귀한 법회에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2차 11월 4일(토) : 덕숭총림 수덕사 원담 방장스님
3차 11월 18일(토) : 조계총림 송광사 승찬 방장스님
4차 11월 25일(토) : 해인총림 해인사 해암 방장스님

문의 : 수미산여명사 국내부 (전화 : 732-0181~3)
(각 회차별 참가비 2만원)

※ 시과드립니다 당초 10월 28일 예정됐던 해인사 해암 방장스님 친견법회가 스님의 사정으로 부득이 11월 2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행사에 차질을 빚어 신청하신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25일 마감... 원고지 30매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행수기 공모는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꾸밈없는 상상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실리게 되는 신행당 공모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신행수기 공모 안내

- △ 공모내용 : 생활수행 이야기 · 부처님 가르침으로 노년을 이겨낸 이야기 등
- △ 원고문량 : 200자 원고지 30매 내의
- △ 접수마감 : 95년 11월 25일
- △ 접수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 화 : 722-4162 팩스 : 737-0698
- △ 참가대상 : 불자면 누구나 동참 가능
- △ 당선작 발표 : 현대불교 96년 신년호 지면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 △ 시상내용 :
 - 유마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 메달)
 - 중년협의회장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 본사 사장상 : 상장, 상품
 - 특별상 : 상장, 상품
 - 응모자지원 : 기념품 증정

전통 복정의식
현장을 가다 · 16년

구독료납부 은행계좌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미래에 도전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효성중공업

發進 21世紀

고객제일주의 정신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성중공업 -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효성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p>중전사업부문</p> <p>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효율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p> <p>■ 변압기, 차단기, 전압을 계측용, 용량기, 절단장치</p>	<p>기전사업부문</p> <p>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p>■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축설비, 환검보전설비, 화력발전기, 석도설비</p>	<p>FA사업부문</p> <p>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 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p> <p>■ 제어설비, UPS, PLC 등 전력전계, 용류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소재 SYSTEM</p>	<p>건설사업부문</p> <p>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p> <p>■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 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p>
---	--	--	--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